

# 현대복식에 표현된 멕시코 벽화미술의 내적의미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효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주미경

## 目次

|                         |                         |
|-------------------------|-------------------------|
| I. 서론                   | 1. 사회·문화적 배경            |
| II. 멕시코 벽화미술의 이론적 배경    | 2.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 |
| 1. 시대적 배경               | IV. 결론                  |
| 2. 벽화미술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 참고문헌                    |
| III.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       | ABSTRACT                |

### I. 머리말

21세기를 앞에 두고 있는 현대인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의 변화와 성장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기말적 불안감 및 미래에 대한 제시는 그 어떤 학문도 대변할 수 없었다.

또한 한국이나 아시아 주변국들의 환을 절하는 IMF구조경제라는 경제불황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환란(換亂)은 산업사회의 문제와 세계 자본사회의 문제로 번지면서 대중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현대인의 이러한 정신적 혼란은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려는 욕구등으로 표출되었고 여기에 접근한 미술은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많은

은 조형적 성과를 거두거나 사회적 현실에 접근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술중의 하나로써 [벽화미술]이라는 민족적인 경향의 미학적 혁신을 들 수 있다.

벽화미술<sup>1)</sup>은 멕시코 혁명이라는 변혁기에 소수층에 의해 독점되는 미술을 거부한 대중예술로써 대중의 사고를 서술적이고 교훈적으로 표현한 무늬 버스화된 시각적 대중미술이었다. 즉 멕시코인의 사상의 근본이 되었으며 멕시코 문화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리의 예술로써 불운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평등한 미래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국민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인 사회환경은 자연환경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어 그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특징지우며 나아가서는 복장을 특징지운다<sup>2)</sup> 라고 하였듯이 복

1)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entice Hall, 1989, p. 312.

2)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75, p.17.

식에서도 시대적, 사회적 불안감이 그대로 표현되기 보다는 과거의 것을 더욱 새롭게 정립하거나 변형시킴으로써 현대인의 가치와 사고가 반영된 조형언어적인 디자인으로 표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에 대중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멕시코 벽화운동을 근거로 하여 멕시코의 역사적 흐름과 현대사의 배경을 비교분석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현대복식에 있어서 벽화미술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당시의 불운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시대적 배경과 현재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했기 때문에 복식에서도 당시의 예술양식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지를 통한 고찰로써 라틴 아메리카사와 관련된 서적 및 학술논문, 간행물 등을 바탕으로 하여 멕시코 벽화미술의 시대적 배경 및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0세기말 특히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고찰을 하였는데 이것은 1920년대의 벽화미술의 형성배경이 세기말적 시기인 현대 사적 배경에서의 시대정신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복식에 관한 작품 또한 80년대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II. 멕시코 벽화미술의 이론적 배경

### 1. 시대적 배경

먼저 근대이후의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19세기 이전의 미술에서는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이나 신화,

종교 등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회화나 조각의 주된 주제였지만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성격과 자본주의의 영향이 미술에서도 사실적 표현과 현실적인 소재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세기초에서는 순수미술과 다른 예술과의 상호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참신한 기법의 활용으로 새로운 시대적 미학을 추구한 많은 예술양식이 범람하였는데 이 당시 태동한 '1920년대의 멕시코 벽화주의(Mexican Muralism)'는 정부의 후원에 힘입은 미술의 의미, 목적, 주제가 사회정치적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특이한 미술운동<sup>3)</sup>이었다.

모든 미술은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멕시코 벽화미술의 태동은 멕시코 역사의 흐름과 밀접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벽화운동의 주역들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문화는 아즈텍(Aztec)<sup>4)</sup> 제국의 문화로써 이것은 종교에 부합된 집단생활에 대한 봉사와 삶과 자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의 표현수단으로 그들의 이상을 전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 문화였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벽화미술에 있어서 멕시코 혁명은 작품의 조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기에 이에 멕시코의 혁명전후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810년 멕시코의 신부 이달고(Hidalgo)와 모렐로스(Jose Maria Morelos)에 의한 독립투쟁은 시작되었고 이 독립운동은 노예상태에 있었던 민중의 해방이 아닌 스페인 봉건제하의 일부 지배가가 본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빈곤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1822년에서 1876까지 56개의 정부가 교체되고 1876년 마침내 디아즈(Profririo Diaz)에 의해 독립을 쟁취하였는데 디아즈<sup>5)</sup> 정부는 민중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상류계층의 관심을 끌었으며 외국투자를 촉

3) 이정아, 멕시코 근대벽화미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3, p. 2.

4) 아즈텍(Aztec) : 이들 자신들이 직접 부른 국호는 아니며, 이 종족들이 동화속의 나라 '아스트란'에서 온 것 같다는 소문이 나면서 스페인인들이 붙인 이름으로 당시 호칭은 테노치카(Tenochica)였다.

5) Edward Susic-smith, Latin American Art of the 20th Century,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3), p. 49.

진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농민들의 대다수는 토지를 잃고 소수의 지주에 의해 예속당함으로써 인디오들은 열등민족으로써 억압을 받았다.

결국 압제와 장기집권을 해오던 디아즈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자유, 질서 그리고 진보를 내세우며 독립 100주년이 되던 1910년 드디어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혁명은 프란시스코 마테로(Francisco Madero)에 의해 시작된 혁명이었지만 1916년 미국이 승인한 카란자(Carranza) 정권에 의하여 몇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17년 새 헌법의 재정으로 등장하게 된 오브레곤(Obreon)정부는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 농지개혁의 승인, 노동자의 권익 옹호 및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민족주의 입장을 그의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멕시코 정부는 원주민 공동체가 가졌던 정신적 유대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혁명으로 주도세력인 인디오와 메스티조를 국민 문화내에 흡수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회적인 공동체 의식과 통일된 멕시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미술작가들로 하여금 학교 건물을 포함한 각종 공공건물에 벽화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멕시코 화가들은 국가와 민중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사명을 재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멕시코 혁명의 이상과 민중의 염원은 민족 예술의 부흥이라는 가치를 지닌 멕시코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이 당시 유럽의 다른 어떠한 예술양식과는 달리 민족사적 미술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그리

한 이유로 1920년대는 멕시코 예술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를 이룬 시기<sup>6)</sup>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멕시코 벽화미술은 미술이 그 나라의 공동체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예르써 아즈텍족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되는 멕시코의 글절된 역사와 300년간의 시민지 시대 그리고 독립전쟁 및 계속된 내란과 독립이후의 독재체제 등 혼란한 정치적 상황속에서 박해와 빈곤에 시달린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봉기함으로써 멕시코 혁명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이에 문화적인 해방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예술분야에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작가가 자기 예술속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구하였던 것이다. 즉 그것은 소수 귀족층이나 부유층에 봉사하는 장인 의식에 벗어나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sup>7)</sup>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가들의 자각은 당연히 그들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인식이나 적극적인 자세는 널리 전파되어 소통됨으로써 예술의 소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이나 포부도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흔히 언급되고 있는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처럼 멕시코 벽화미술은 미술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주제가 사회정치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특이한 미술운동으로써 역사성이 깃든 시대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신인상주의(Neo-Impressionism)<sup>8)</sup>에서 입체주의(Cubism)<sup>9)</sup>, 바우하우스(Bauhaus)<sup>10)</sup>, 아르데코(Art Deco)<sup>11)</sup>, 표현주의(Expressionism)<sup>12)</sup> 예술분야의 직접적인

6) Edward Lucie-Smith, op. cit., p. 37.

7) 노원희, 미술관중의 민중화의 멕시코벽화운동, 동의 대학-동의논문집, 제8편, 1993, pp. 245.

8) 신인상주의 : 쇠라, 시냐 등 중심으로 행해진 점묘주의 등의 이론과 수법 및 그 운동을 말한다.

9) 입체주의 :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혁신 운동으로써 1908년 마티스가 브라크가 그린(에스타르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의 덩어리'라고 발한 데서 유래되었다.

10) 바우하우스 : 1919년부터 건축가 그로피우스가 바이마르에 창립한 종합 조형학교 및 연구소로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꾀하는 그 이념과 목적이 있었다.

11) 아르데코 : 장식미술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1925년 파리의 현대 장식·산업미술 국제 박람회의 약칭에서 유래되었다.

영향보다는 미술작가들이 받은 것은 대중의 관심과 결부되어 예술의 목적을 대중의 감정과 감각의 표현을 우선으로 하였고 선, 색채, 형태 등은 내용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어서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벽화미술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1910년에서 20년 동안의 멕시코 혁명은 미술과 문화 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으며 멕시코 벽화운동이라고 불리는 문예부흥 열기로 인하여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비참한 민중과 침략, 전쟁, 멕시코의 민족성애로의 회귀였다.<sup>13)</sup>

오랫동안 계속된 내란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갈등과 힘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예술 창조에 참여한 작가들은 1921년 화가, 조각가협회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벽화운동 전개에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가들은 표면상으로는 멕시코의 혁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결부되어 있었지만 미술작품의 재료와 소유방식에 대하여 이전의 캔버스라는 도구와 개인을 위한 작품에 도전하면서 미술행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쟁점들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액자와 캔버스에 부터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스페인 침략 이전의 과거의 사회적 현실 뿐 아니라 토착문화 미학까지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벽화미술에 참여한 많은 대표적인 작가들 중에서 포사다(Jose Gradalupe Posada, 1852-1913),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 오르조코(Jose Clemente Orozco, 1883-1949), 시퀘로스(David Alfaro Siqueiros, 1898-1974)를 중심으로

이들 작품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 (1) 포사다 작품의 조형성

포사다는 182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친 백년동안은 멕시코의 격동기로서 이때의 낡은 유럽풍의 화풍에 안주하던 멕시코 화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였다.<sup>14)</sup>

그는 벽화작가라기 보다는 벽화미술에 미친 영향력이 큰 판화가로서 팜플렛의 삽화나 민오지 그리고 담배의 상표 등 만오천점이 넘는 판화를 제작하였던 벽화 운동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사다는 벽화가도 아니고 순수미술작가도 아니었지만 대중판화나 삽화 등을 통하여 독재자와 상류 귀족층에 대한 풍자와 야유, 익살을 담은 작품의 대변가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문맹률이 높은 멕시코에서는 다른 어떤 예술분야보다 진한 감동을 주었으며 민중의 회노애락을 잘 표현하였다.

포사다의 작품[Calaveras of journalists]<그림1>은 인간을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멕시코 혁명이후 민중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가나 상류층이 보여준 부정부패를 꼬집어 풍자와 야유로써 표현한 그림이었는데 독재정치에 대한 민중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용기를 북돋아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La Catrina]<그림 2>란 작품에서도 허위허식에 빠진 디아즈 정부의 정치가들의 부패를 벌거벗은 해골로 표현하였는데 원래 이 해골의 형상은 멕시코 고대미술에서 즐겨그렸던 그림으로써 대중의 억눌린 감정을 토속적인 그림소재로 사용하여 나타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해골시리즈는 인간을 단순히 죽

12) 표현주의 : 예술사와 비평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예술의 기본 목적을 자연의 재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르네상스 이래 예술의 전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예술운동의 하나였다.

13) 김미정. op. cit., p. 9.

14) Edward Lucie-Smith, op. cit., p. 55.

음의 의미를 내포한 해골로 표현한 것으로써 유럽인의 우울이나 타락, 죽음에 대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기를 북돋우는 마야 아즈텍의 생사관에 연유된 것이었다. 즉 해골분장을 한다든지, 해골모양의 과자를 먹는 죽음의 축제를 이어져 내려온 고대 멕시코의 살아있는 신화의 표현이었는데 이것은 멕시코 전통적 민족 예술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해골은 술에 취하거나 싸움질을 하고 춤추거나 울음을 터뜨리면서 정치가들과 상류계급을 흉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대중들에게 넓고 깊은 전달력과 설득력으로 멕시코의 미의식과 색채감각을 키워나갔다.

이처럼 포사다는 멕시코 민속 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고 평범한 장면을 호소력 있는 미학적인 가치로 일깨워 주었으며 벽화운동 세대들의 정신적인 지주으로써 민중의 정치, 경제, 사회적 해방운동의 전위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2) 리베라 작품의 조형성

리베라도 포사다 못지 않게 멕시코 초기의 벽화 미술에 영향력을 미쳤으며 뛰어난 지도력으로 민중 예술로써의 벽화미술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사회혁명의 이상을 표현하면서 양식면에서는 자신이 배운 서구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멕시코 고대문명과 민족 미술의 전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작품[Zapata]〈그림 3〉는 혁명 당시의 농촌지도자였던 밀리아노 자파타(Emiliano Zapata)를 그린 것으로써 대부분의 멕시코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났는데 멕시코인의 정부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그는 1892년 산 카를로스 미술학교(Academia De

San Carlos)에 입학하여 계몽사상에 기초한 19세기의 자연법칙과 입체주의(Cubism)에 접근<sup>16)</sup>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사물의 순수한 단계에서 형태와 색채를 발전시켜 사물을 축소화하거나 단순화시켰고 황금분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술에 있어서 모든것이 기하학적인 공간을 이루는 형태와 구조로써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가 색채라고 부르는 것중에서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는 빛의 진동에 의한 복잡한 시각물인 기학적인 것<sup>17)</sup>으로 보았던 것이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물리학과 철학이 공존하는 실체로써 상호 복합성을 근거로 하여 사물의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을 축소화하거나 단순화시켰고 과학주의적 사고들을 받아들여게 되었다.

특히 이 모든 과학적 사고와 민족미술의 사상체계는 그의 전체적인 예술세계를 주도하는 커다란 흐름이 되었으나 학교에서 배운 유럽풍적 화풍에 거부감을 느낄 즈음, 이때 판화가 포사다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여기서 포사다의 판화에 대한 기술적인 면 이외에 해학이나 풍자 및 저항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 리베라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점묘법<sup>18)</sup>과 입체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 신인상주의에서 입체주의로 옮겨지게 되었다.<sup>19)20)</sup>

작품[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력과 해방된 대지]〈그림 4〉에서는 원통형의 둥근 천장과 아취형태로 이루어진 장식이 특징으로써 대지에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는 등의 자연의 진보과정과 자유를 위한 혁명과정을 대비시켜서 표현되었다.

또한 이 벽화에서는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여인

15) Rive Castleman, Prints of the 20th Century, Thames and Hudson, 1988, pp. 121-122.

16) Edward Lucie-Smith, op. cit., p. 49.

17) 이정아, op. cit., pp. 26-27.

18) 점묘법 : 점 또는 점과 유사한 세밀한 터치로써 묘사하는 회화기법의 용어.

19) Edward Lucie-Smith, op. cit., p. 22.

20) Dictionary, Art and Artists, Thames and Hudson, 1994, p. 308

의 모습이 정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육체에서 느껴지는 풍요로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유연함을 분할하여 독창적인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신인상주의에서 볼 수 있는 색채 분할주의<sup>21)</sup>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작품[Showing the Building of a City]<그림 5>는 리베라의 대표적인 걸작으로써 꿈속같은 신비스러움으로 그려져 있는데 멕시코인들의 역사관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인간들의 풍속과 집단들의 이상과 열망이 한데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삶의 토대를 이룩한 멕시코의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이상과 꿈이 하나로 표현된 것으로 민중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사실주의적 입장에서 그려졌다.

### (3)오로즈코 작품의 조형성

벽화미술의 3대 거장중의 한명인 오로즈코는 부모가 혼혈족, 즉 메스티조(Mestizo)족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스페인 지향적이고 카톨릭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시절 포사다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애정을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왼쪽손을 잃는 사고로 인하여 삽화가로서의 일생을 시작하였는데 사고 이후 그의 그림에는 손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집착이 나타났다.

또한 오로즈코가 미술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포사다와 아틀박사(Dr. Atl)<sup>22)</sup>였는데 그는 아틀박사에게 전통미술을 배웠으나 그림은 아카데미즘을 무시

한 포사다와 같은 분위기의 삽화나 풍자화였다.

아틀박사는 인상주의 그림들과 이태리 부흥운동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후 오로즈코는 그에게서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의 그림이나 프레스코화법<sup>23)</sup>에 대하여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혁명 기간중에 사회적인 이상을 앞세운 위선과 혁명으로 민중의 박애를 목격하였지만 리베라나 시케이로스과 같이 정치적이지 못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사명에 대한 교육적 성격을 강하게 반영시켰다.

또한 그의 주요작품들<sup>24)</sup>은 1947에서 1948년 사이 국립교육학교에서 거의 완성되었는데 주제는 멕시코인의 고통과 비극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도덕적 위기에 관한 것이었다.

작품[성 스테판의 순교]<그림 6>에서는 드라마틱한 구도로 멕시코인의 고통과 비극을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도덕적 위기에 대하여 나타냈고 [십자가를 부수는 예수]<그림 7>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강력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용하여 당시의 지배 세력의 파멸을 예고<sup>25)</sup>해 주었다. 또한 군부에 대한 공격을 보여주는 예로써 혁명적인 분위기가 강한 이 작품은 도끼를 재탄생의 도구로 승화하여 묘사하고 있다.

작품[American Civilization-Latin America, detail of post-Cortesian section]<그림 8>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억압과 인종 차별로 가위눌린 서민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다. 오로즈코는 처음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미참한 현실만을 표현하였지만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정치가나 일반인을 향한 도전적인 자파타의 영웅세계를 그렸다.<sup>26)</sup>

21) 분할주의(Divisionism) : 색채분할이라고도 번역되며, 인상주의 필획 분할의 근거가 된 생각 및 그 색감이 이론화된 것을 가리킨다.

22) Edward Lucie-Smith, op. cit., p. 56.

23) 프레스코(Fresco)화법 :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 이태리어로 '신선하다'는 뜻으로 덜 마른 회반죽 바탕에 물에 갠 안료로 채색한 벽화

24) Christos M. Joachimides & Norman Rosenthal, The age of Modernism Art in the 20th Century, Verlag Gerd Hatje, 1997, p. 635.

25) The Art Book, Phaidon, 1996, p. 345.

그리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인간 삶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하였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힘이 있는 이미지를 그려냈던 것이다.

#### (4) 시케로스 작품의 조형성

시케로스는 1896년 치와와(Chihuahua)에서 태어났으며, 리베라처럼 꾸준히 그림작업에 몰두하지 못했지만 화가인 동시에 노동운동가였다.

멕시코 혁명당시 산칼로스 학생이었던 그는 당시의 유럽풍의 인물화나 석고땃생의 그림교육에 반발하여 15세의 어린나이에 학생폭동을 일으켰으며 여러번 투옥되었다.

그의 학업은 혁명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혁명군에 입대하여 장교의 신분으로써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미술사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미래주의<sup>27)</sup> 양식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역동적인 속도감과 운동감을 표현한 보치오니(Boccioni)와 프레스코 화가인 마시치오(Maciccio)에 관심을 더욱 보였던 것이다.

시케로스는 파리에서 리베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은 벽화미술 형성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시케로스와 리베라는 유럽모더니즘적인 반민중적인 성격을 비판하며 이태리로 갔으며 여기서 둘은 프레스코화를 연구하며 멕시코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sup>28)</sup>

그 이후 정부의 지원아래 국립예비학교의 벽화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1924년 학생들의 항의에 의해 작업은 중단되었고 많은 정치적 활동으로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체험과 사회운동에서 나타난 이념을 바탕으로 기념비적이고 민중적인 미술을 창조하였는데 민중들의 현실과 삶의 모습을 자각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의식을 깨우치는 벽화를 그리려 노력하였다.

작품[Echo of Scream]〈그림 9〉은 정부의 탄압에 대한 민중의 부르짖음을 마치 아이의 소리로 대변하듯 멕시코의 비참한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시케로스의 작품은 표현주의나 심지어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을 수용하고 있다<sup>29)</sup>고 할 수 있는데 가끔은 과장되고 웅변적인 면을 보이지만 감성적인 힘을 가지고서 민중의 삶을 찬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은 멕시코의 교육자(Moises Saenz)를 묘사한 작품<sup>30)</sup>으로써 사회적인 인물을 리얼리즘적 표현한 것으로 명암의 강한 대비로 풍부한 양감이나 입체감으로 생동감과 힘의 분출을 느끼게 한다.

작품[Portrait of the Bourgeoisie]<sup>31)</sup> 〈그림 11〉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건물에 그린 그림으로써 천장을 벽과 연장시킨 형태를 이루어 연속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미래주의 유희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4명의 작가들은 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당시 예술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입체주의, 바우하우스, 표현주의, 아르테코, 미래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벽화미술의 조형성이 성립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다른 예술양식과의 조형적 관계를 요약 설명하면 [도표 1], 〈표 1〉과 같다.

26) Hugh Honour, John Fleming, A World History of ART, Laurence King, 1995. p. 755.

27) 미래주의 (Futurism) :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예술운동으로써 기계가 지닌 차가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예술의 주제로까지 삼았고 스피드감이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화에 시간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28) Edward Lucie-Smith, op. cit., pp. 56-58.

29) 20세기미술가 인명사전(재료편), 김정화, API출판, 1993, pp. 167-168

30) Riva Castieman, op. cit., pp. 121-122.

31) Edward Lucie-Smith, op. cit., pp. 61-63

[도표 1] 벽화주의의 영향을 미친 예술양식의 조형적 특성

| 양 식                 | 벽화주의의 영향을 미친 예술양식의 조형적 특성  |
|---------------------|--|
| 입체주의(Cubism)        | *여러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 대상의 분할, 밝은 색채와 울동감의 도입.             |
| 바우하우스(Bauhaus)      | *현대사회의 근본적 성격분석, 합목적적, 형태의 창조력과 결합할 수 있는 인간양성.                   |
| 표현주의(Expressionism) | *예술의 진정한 목적을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두고, 선, 형태, 색채 등의 이것의 표현가능성으로 이용됨. |
| 아르데코(Art Deco)      | *직선, 입체, 기하학적 문양의 선호   |
| 미래주의(Futurism)      | *차가운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조형예술의 주제로 삼고 스피드감이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화에 시간의 요소를 도입  |



| 벽화주의(Mexican Muralism)                    |
|---|
| *인간중시 인간의 도덕적 위기에 대항한 인간성 회복의 표현          |
| *이상향 추구 종교적, 신비적, 이상희망적인 표현               |
| *민족주의 성향 기념비적이고 민중적인 미술의 표현               |
| *풍자, 우의화(寓意畵) 설득력이 높은 기하학적 조형으로 풍자우의적인 표현 |

<표 1> 작가별 조형적 특성

| 작가   | 조형적 특성                                   | 상징적 의미   |
|------|--|----------|
| 포사다  | *해골인물로 인한 대중미술의 전형적 이미지화                 | *풍자, 우의화 |
| 리베라  | *종교화의 영향 수용, 자연의 진보화                     | *이상향 추구  |
| 오로즈코 | *억압, 착취된 원주민의 비극적 삶의 이미지화                | *인간중시    |
| 시케로스 | *민중적이고 민중적이며 투쟁적인 미술주장, 토착문화의 양식적 요소 혼합화 | *민족주의 성향 |



### III.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

#### 1. 사회문화적 배경

복식의 창조활동이란 인간의 감정과 심상(心象)을 전달하는 예술표현의 한 형태<sup>32)</sup>로써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개인적인 구성요소인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적 체계 속에게 깊이 간직된 사회적 활동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풍족한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개인주의 팽창과 급격한 빈부차 그리고 사회계층간의 갈등 및 자연파괴 등에서 나타난 회의는 현대인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멕시코의 벽화운동이 생겨난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복식에서의 벽화미술 또한 정치적 상황과 사회문제, 인종간의 갈등 및 불평등, 민족분쟁 등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에는 IMF체제의 증추였던 금달러 본위제가 붕괴됨에 따라서 환율변동제로 저성장이 계속되었고 1980년 중반에는 정부의 세출삭감, 대폭적인 감세, 통화 공급량의 억제 등으로 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세계경제구조가 붕괴되었다.<sup>33)</sup>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주의의 붕괴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점차적인 경제적 붕괴는 곧 민족분쟁을 격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20세기 회화 및 여러 예술양식에는 대중의 심리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복식 또한 대중의 가치관과 신념이 반영된 영속성을 지닌 조형예술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강렬한 색채와 조형으로 민족의 얼을 회복하는 데 앞장선 멕시코 벽화운동<sup>34)</sup>과 마찬가지로 현대 복식에서의 벽화미술의 등장은 조형적 혹은 미학적인 새로움보다는 현 시대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반영된, 대중과는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상징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 인종들의 문화적 자주성과 스스로의 전통과 이미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각 민족의 특성을 내포한 문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적 자주성은 곧 예술의 기능과 방법에 새롭게 도입되게 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의 벽화미술에서도 나타났듯이 조형예술인 현대복식에서도 자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문양이나 색채로 민족적 이미지가 내포된 복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현대인은 21세기 문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경제불황이나 인간소외 등에서 오는 위기의식은 대중으로 하여금 이상, 이성, 종교, 영웅적으로 호르게 하였고 이러한 혼돈은 이상세계를 더욱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의 멕시코 벽화미술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현대 복식에서의 벽화미술이 상징하는 의미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그 분류인 인간중시, 이상향 추구, 민족주의 성향, 풍자우의화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 2.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

##### (1) 인간중시

현대사회는 인류문화의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 또는 기술정보화 시대로 통칭된다. 이것은 곧 다원화된 산업

32)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351.

33) 기무라 히데스케, 이윤희 역, 20세기 세계사, 가람기획, 1997, p. 266.

34) 장소현, op. cit., p. 43.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인간화 현상'<sup>35)</sup>을 초래하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인간에 대한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였다.

Jean Paul Gaultier 작품<그림 12-1>은 남성복 상의에 성스러운 인간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낸 작품으로써 생명존중의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있다. 즉 이것은 세기말적 사회현상에 대응한 대중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점차 기계화 되어가는 인간상에 회의론을 느껴가고 있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vienne Westwood 작품<그림 12-2>에서는 피트윈 상의에 일상생활로 부터 해방된 듯한 인간의 모습을 하의의 검정색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더욱 강한 인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발달이 물질적 가치의 우세로 이어짐으로써 인간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인간소외 및 생명존중의 의식이 희미하게 된 것에 대한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Vivienne Tam<그림 12-3>작품에서는 검정색과 분홍색이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의 편안한 모습을 단색과 부드러운 선으로 인간애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산업사회의 문제점인 합리화와 기계화에 대한 반항의지가 자아에 대한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우선적인 복식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4> Etienne Brunel 작품은 벽화주의 오로스코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고통, 악 그리고 희생에 관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족쇄로 채워진 인간의 모습이나 창살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위기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복식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중시의 상징적 의미는 기술 정보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인류애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을 인위적인 모습으로 정형화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벽화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도덕적 위기에 대항한 인간성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의상으로 나타났다.

## (2) 이상향 추구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종교나 이상세계와 결부지음으로써 극한된 상황에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세계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벽화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멕시코의 파란단장한 역사에 대한 희망세계로의 지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현대 복식에서도 이상의 세계나 종교적 영향을 받은 복식이 등장하고 있다.

Richmond 작품<그림 13-1>에서는 인도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모양을 복식의 상의와 하의에 인용함으로써 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에 의한 기독교나 인연의 사슬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는 불교 그리고 자연섭리를 최고의 나침반으로 여기는 유교 등의 종교세계나 평등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이상향을 동경함으로써 현대인은 이상과 꿈이 하나 되길 바란다고 할 수 있다.

Jean-Charles De Castelbajac작품<그림 13-2>과 Kyoko Higa작품<그림 13-3>에서는 절대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복식에 인용함으로써 의상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신의 세계 즉 이상의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좀 더 가까이 하고픈 희망적인 심상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4>는 Leonard의 작품으로써 불교의 가사에서 볼 수 있었던 실루엣의 변형과 가사의 색깔 그리고 이상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인물묘사 등은 종교사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35) 한국동양철학의 위음, 기술 정보화 시대의 인간문제, 현암사, 1994, p. 144.

있다.

결국 이러한 이상향의 추구는 멕시코 벽화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각종 인간들의 풍속과 집단들의 이상과 열망을 나타낸 민중의 삶을 표현한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대 복식 또한 종교세계나 이상세계의 열망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3) 민족주의 성향

현대의 테크놀러지 산업과 무역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민족간이나 국민간의 격차를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계속된 기술개발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간의 분쟁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성향은 현대 복식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민족적 종족임을 암시해주는 모티프나 다양한 칼라로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anck Sorbier 작품<그림 14-1>은 리베라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민중들의 현실과 삶의 모습을 보는 듯한 기념비적이며 사실적인 양식의 표현으로 벽화미술의 민족주의 특성이 잘 나타난 복식으로써 그물조적으로 이루어진 상의는 세상을 엿볼 있는 문(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하의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모자(母子)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민족성은 언어, 지역, 경제 및 민족문화 등의 공동의 역사적 운명을 지니는 문화의 공동성이 매개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결합력이 생길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Franck Sorbier 작품에서도 이러한 조형성이 표출되고 있다.

<그림 14-2>는 Manuel Pina 작품으로써 벽화미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토착민의 모습을 굵은 붓터치로 그린 작품으로써 제 3국의 민족을 입체적인 패턴이 아닌 평면적인 캔버스화된 틀에 힘없는 모습으로 그려낸 무언 항변적인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원주민의 모습을 암시해주는 <그림 14-3>은 토착문화적인 굵은 붓터치와 색채로 인종간의 갈등과 불평등 등을 고발함으로써 사회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민족간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영선<sup>35)</sup>은 '민족성이란 모든 문화예술의 정신적 집결체로써 이것은 오랜 기간과 공간을 지배하며 지속되어 온 것에 기인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향은 벽화미술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20세기 후반 인종차별과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인류의 존엄성과 민족주의를 표현하려고 하는 현대복식 조형예술에서도 민족적이며 토착문화적인 특성을 자주 엿볼 수 있었다.

Herme's 작품<그림 14-4>은 의복을 하나의 캔버스으로써 이용하여 사회의식이 내포된 역사적 배경을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했던 벽화미술의 특성이 잘 나타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복식에 나타난 민족주의 성향은 멕시코 벽화미술의 특성에서 표현하려 했던 가장 보편적인 역사성이 갖는 시대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 의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민족 공동체적 감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어려운 시대에 대한 정신적 집결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 (4) 풍자주의화

대중문화의 홍수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가속화에 대한 인간소외에 대한 반발과 정치, 경제, 사회속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을 복식문화에서는 풍자적이며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역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멕시코 변화미술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고통받는 인간의 삶을 표현한 그림에서도 어둡고 무거운 색채 등에서 탈피하여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밝은 색감 등

35) 한국동양철학의 위음, 기술 정보화 시대의 인간문제, 현암사, 1994, p. 144.

으로 표현하였다.

Franck Joseph Bastille 작품<그림 15-1>은 포사다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해골 시리즈 모양이나 인체의 일부인 눈(目)의 모양을 복식에 묘사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습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 인간의 미약함을 자연에 호소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염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Gianni Versace 작품<그림 15-2>은 우주 천체와 인간의 모습을 기하학적인 문양을 이용하여 흥미롭게 풍자한 복식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듯한 멕시코 벽화미술의 조형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림 15-3>작품은 인간의 형상을 프레스코화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도형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으로써 인간들의 이상과 열망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4>에서는 하의 팬츠를 캔버스에 삼아 강

렬한 색채로 보편적으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슬 형태와 실루엣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전형적인 벽화미술의 우의화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인간이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로부터 소외되었을때 하나의 저항문화와 풍자적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상위문화에 대한 반작용을 일으키듯이 이렇수록 대중예술은 세태를 꼬집은 작품 경향으로써 우의적인 표현으로 호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복식에서의 풍자우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반항적이고 비판적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현대인의 고뇌를 간접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가 현대 복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복식에서의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 및 조형성

| 복식에서의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 | 조 형 성   |
|--------------------|---|
| 인간 풍자              | *인간의 얼굴 형상 인용<br>*인간의 도덕적 위기를 암시적으로 표현                    |
| 이상향 추구             | *종교복식의 실루엣 및 색채의 사용<br>*이상세계에 근접하고픈 희망적인 심상 표현            |
| 민족주의 성향            | *민중의 현실과 삶의 모습 표현<br>*토착문화적이며 기념비적인 표현                    |
| 풍자, 우의화(寓意畫)       | *해골이미지와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경쾌한 색채의 사용<br>*인간의 삶을 풍자적이며 익살스럽게 표현 |

#### IV. 결 론

다원화된 사회속에서의 IMF구조경제는 우리 현대인으로 하여금 삶의 방식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 한편으로는 전통을 되살리려는 욕구 등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이러한 욕구와 멕시코 혁명기에

소수층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거부한 무캠버스화된 시각적 벽화미술과의 접목은 사회적 현실에 접근한 대중미술로써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의 현실에 대응한 1920년대의 벽화주의를 근거로 하여 멕시코의 역사적 흐름과 현대사의 배경을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현대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벽화미술의 주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포사다, 리베라, 오로즈코, 시케로스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포사다는 해골인물로 인한 대중미술의 전형적 이미지화로 풍자주의화적인 특성으로, 리베라는 종교화의 수용이나 자연의 진보화로 이상향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로즈코는 억압과 착취로 비참해진 멕시코 원주민들의 삶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시케로스는 민족적이며 투쟁적인 미술을 주장하여 민족주의 성향을 강조하는 특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식에 등장하기까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의 멕시코 시대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 문제, 인종간의 갈등 및 불평 그리고 민족 분쟁 등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강렬한 색채와 조형으로 민족의 얼을 회복하는데 앞장선 멕시코 벽화운동은 현대 복식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의식이 반영된 상징적 의미가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중시의 상징적 의미는 인간을 인위적인 모습으로 정형화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벽화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도덕적 위기에 대항한 인간성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의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향 추구의 상징적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에 의한 기독교나 인연의 사슬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는 불교 그리고 자연섭리를 최고의 나침반으로 여기는 유교 등의 종교세계나 평등의 세계라 할 수 있는 이상향을 동경함으로써 이상과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족주의 성향의 상징적 의미는 벽화미술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던 민중적이며 토착문화적인 특성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민족적 종족임을

암시해주는 모티브나 다양한 색채로써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넷째, 풍자주의화적인 상징적 의미는 고통받는 인간의 삶을 표현한 그림처럼 어둡고 무거운 색채 등에서 탈피하여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밝은 색감 등으로 복식에 표현되었다.

이처럼 복식에 나타난 벽화미술의 상징적 의미는 물질문명의 가속화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더욱 성숙된 정신문화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시대상황의 결과와 함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무한한 디자인의 영감과 미학적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후속연구로는 주요 디자이너의 작품에 등장한 벽화미술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더욱 많은 특성의 발견과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Calaveras of journalists, Pos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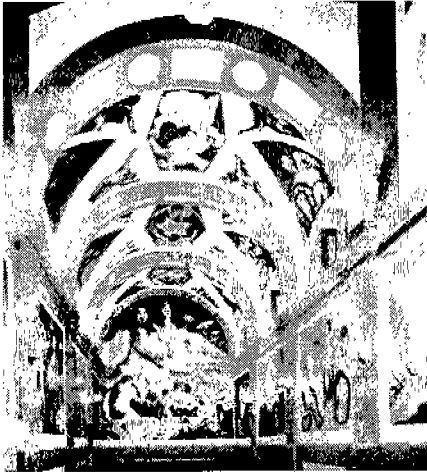
<그림 2> La Catrina, Posada,



〈그림 3〉 Zapata,  
Rivera, 1929-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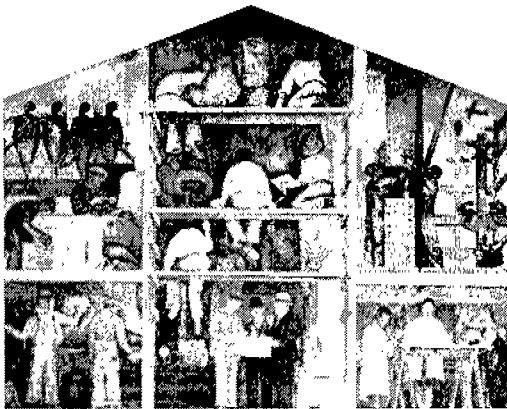
〈그림 6〉 성 스테판의 순교,  
Orozco, 1943



〈그림 4〉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력과  
해방된 대지, Rivera, 1934



〈그림 7〉 십자가를 부수는 예수  
Orozco, 1937



〈그림 5〉 Showing the Building of a City  
Rivera, 1931



〈그림 8〉 American Civilization-Latin America,  
detail of post-Cortesian section,  
Orozco, 1932



<그림 9> Eco of Scream,  
Siqueiros, 1937



<그림 12-1> Jean Paul Gaultier,  
Uomo Collezioni, '95 S/S



<그림 12-3>  
Vivienne Tam,  
Modain, '93/ S/S



<그림 10> Moises Saenz,  
Siqueiros, 1931



<그림 11> Portrait of the Bourgeoisie,  
Siqueiros, 1964



<그림 12-2> Vivienne Westwood  
Harper's Bazaar, '90/91



<그림 12-4>  
Etienne Brunel,  
Tokyo Collection, '92



〈그림 13-1〉 Richmond,  
Collezioni, Pret-a-Porter, '87



〈그림 13-3〉 KyoKo Higa,  
Collections, '95 S/S



〈그림 13-4〉 Leonard,  
Collezioni Donna, '87



〈그림 13-2〉 Jean-Charles De Castelbajac,  
Fashion News, '92



〈그림 14-1〉  
Franck Sorbier,  
World Collections,  
'92 S/S



〈그림 14-2〉 Manuel Pina,  
fashion News, '91





<그림 14-3> Pierre Balmain,  
Fashion News, '91



<그림 14-4> Herme's,  
World Collections, '92-93 A/W



<그림 15-1> Franck Joseph Bsatile,  
Tokyo Collections, '92



<그림 15-2> Gianni Versace,  
France Harper's Bazaar, '89-90



<그림 15-3> Gianni Versace,  
International Harper's Bazaar, 1991



<그림 15-4> Luna Mattino,  
Fashion News, '94-95 A/W

참고문헌

- 김미정, 멕시코 벽화미술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 김윤민, 초현실주의 조형성과 21세기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1.
- 노원희, 미술관중의 민주화와 멕시코벽화운동, 동의대학-동의논문집, 제 8편, 1983.
- 이정아, 멕시코 근대벽화미술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3.
- 신영선, 服飾의 정신문화, 교문사, 1998.
-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975.
- 장소현, 거리의 미술, 열화당, 1994.
- 한국동양철학회 엮음, 기술 정보화 시대의 인간문제, 현암사, 1994.
- 기무라 히데스케, 이윤희 역, 20세기 세계사, 가람기획, 1997.
- 20세기미술가 인명사전(재료편), 김정화, API출판, 1993.
- Christos M. Joachimides & Norman Rosenthal, The age of Modernism Art in the 20th Century, Velag Gerd Hatje, 1997.
- David G. Wilkins & Bernard Schultz, Art past Art present, Abrams, 1990.
- Edward Lucie-smith, Latin American Art of the 20th Century,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3.
- Elizabeth Ewing,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Batsford Book, 1985.
- Hugh Honour, John Fleming, A World History of ART, Laurence King, 1995.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Jean-Louis Ferrier, Art of our Century, Prentice Hall, 1989.
- Penelope Byrde, A Visual History of Costume,

- The Twentieth Century, Batsford Book, 1986.
- Riva Castleman, Prints of the 20th Century, Thams and Hudson, 1988.
- Dictionary. Art and Artists, Thams and Hudson, 1994.
- The Art Book, Phaidon, 1996.
- Collezioni, '87
- Fashion News '91
- Harper' s Bazaar, '89-' 91
- Modain
- Tokyo Collection, '92
- Uomo Collezioni, '95
- World Collections, '92-93.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l Significance of Mexican Muralis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into a meaning of Mexican Mural, and to clarify on the internal significance of Muralism in the modern fashion.

Muralism is an example of the birth of the great people' s art.

The mural Fine art in Mexico was the peculiar fine art campaign which observed the social function. And the mural of Mexican that the ideology and fine art combined came to occupy the unprecedented important position as a part of popular education which is the product of Mexico revolution.

Thus, in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background of Mexican Mural in 1930' s resembled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The internal significance of Muralis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was categorized as attaching importance to human, the pursuit of the utopia, the tendency to nationalism, Satiric and moral painting.

First, Attaching importance to human in the modern fashion expressed the recovery of humanity by meaning in opposition to moral crisis of the human in the pluralistic society.

Second, The pursuit of the utopia in terms of

interest the ideal way in the modern fashion expressed mysterious or hopeful through using religious colors, motives, etc.

Third, The tendency to nationalism in the modern fashion expressed the painting of the masses in forms of mixing aboriginal culture elements and memorial elements.

Fourth, Satiric and moral painting in the modern fashion expressed wits or humorous style through using geometrical motives and light colors etc, indirectly expressed distress of modern men.